

##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부산에 신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420억 투자·670명 고용

2026. 10. 30.



- 부산시와 투자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 기대
- AI 기반 복합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으로 부산 물류 인프라 강화

2026. 10. 30.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부산에 신규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CLS는 2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물류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CLS를 포함한 3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LS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에 약 42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약 670명의 직·간접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CLS의 이번 투자는 부산 지역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센터는 연면적 약 10만㎡(3만 평) 규모의 물류시설 내 총 8개 층 가운데 4개 층(약 4만4천㎡·1만3천 평)을 활용해 조성되며, 연내 시범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부산 지역 물류 운영의 핵심 거점으로, 물류 처리와 배송 기능을 결합한 AI 기반 복합 스마트 물류센터로 구축된다. 고객 주문이 예상되는 상품을 고객과 가까운 거점에 미리 배치하고 신속하게 출고할 수 있도록 설계돼 물류 운영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S는 대구, 진천, 칠곡, 김해, 장성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CLS의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는 “이번 부산지역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객 서비스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CLS의 투자 결정은 해양수도 부산의 물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산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